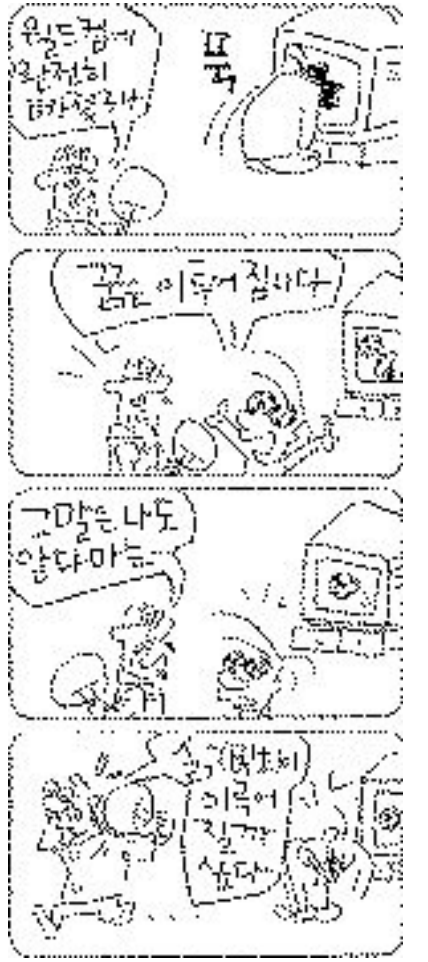


6·15 민족통일대축전 - 남북이 하나 된 날

나원침 (6855) 김동두



손에 손 잡고 "이제는 통일"

휴대전화 "오빠 나야" 조심

5천만통 발송 113억 채팅 36명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휴대전화에 성인채팅 등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불법으로 대량 전송한 남녀 채팅 모바일 서비스 업체 M사 대표 이모(45)씨 등 20개 업체 36명을 검거하고 달안 3명을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오빠 나야. 전화해줘" 등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643만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 19만명의 접속자로부터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와 Y사는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콜백 URL-SMS를 통해 음란성 스팸문자 4천416만건을 발송, 성인화보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란폰팅에 고용된 여성들 중에는 시간당 8천~9천원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도 있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음란폰팅 여성과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 밤낮으로 전화를 걸다 500만원 이상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콜백 URL-SMS = 포털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스팸에 인터넷 주소를 남겨놓고 수신자가 확인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되는 방식.

母女가 '짜퉁' 옷 인터넷 유통

광주남부경찰, 2억여원 상당 의류 압수



광주 남부경찰은 15일 일반 의류 상품에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부착해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오모(여·48·광주시 남구 월산동)씨와 딸 김모(여·2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2억여원 상당의 의류 2천여점(사진)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모녀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일반 의류를 1점당 10만원 가량에 구입한 뒤 구찌·샤넬·프라다 등 가짜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가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육션'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 '특 A급 이미지션'이라고 광고해 네티즌들에게 30만~4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 2001년 광주시 동구 대인동, 2004년엔 서구 월산동에서 옷가게를 열었다가 문을 닫는 등 옷장사 경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노동·농민·여성 등 8개 분야 회동

통일을 기원하기는 교사도, 노동자도, 농민도, 환경운동가도 다르지 않았다. 대동강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당함을 토로하면서도 화두(話頭)는 '통일'이라는 단어였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부문 상봉행사'가 15일 오후 광주 곳곳에서 ▲노동

▲농민 ▲청년 학생 ▲교육 ▲여성 ▲종교 ▲시민 환경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치러졌다.

광주 무진중학교 권수희(여·26) 교사가 2학년 4반 36명의 학생들에게 '남북 공동수업'(교육 부문 상봉행사)을 진행하며,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안 '통일'은 손에 잡힐 듯 다

가운 것처럼 보였다. 수업에는 김성철 '조선교육문화사업'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7명이 참관, 대한민국의 교실을 밟은 사상 첫 북한인이 됐다. 학생들이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사진을 보며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속삭일 때, 남과 북 관계자들 눈가는 조금씩 붉어졌다.

농민들은 한창 바쁜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북측 대표단의 손을 맞잡으려 달려왔다.

백석 '농업근로자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북측 대표단이 행사장인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서자, 남한 농민들은 꽃다발을 선사하고 "조국통일"을 연호하며 한반도를 흔들었다. 이어 '행정대 통일비나라' 공연을 북측과 함께 관람하며, 가슴 속의 '휴전선'을 허물었다. 남측 대표인 정재돈 한국가톨릭농민회장은 "남북농민이 힘을 합쳐 '나 살리고 너 살리'는 통일농업을 함께 지켜보자"고 말했다.

노동계가 만난 조선대 '1.8 극장'에서는 한반도의 색인 흰색과 하늘색의 풍선 615개가 상공을 휘둘렀다. 최창만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8명과 민주·한국 노총 조합원 3천여명은 "통일 기관차"를 함께 끌자"고 다짐했다.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시민환경 부문 상봉행사에서는 황사와 수질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젊은이들은 전남대학교 대강당에 모여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제주·통일·민족 대단결의 3대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결의했고, 광주문화예술회관에 모인 여성들은 "통일의 꽃을 터트리는 씨앗,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뿌리자"고 입을 모았다.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6개 종단 남과 북 종교인들도 무등파크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겨레가 다시 뭉치는 것은 신의 뜻"이라며 통일을 기원했다.

/임주영기자 jhlim@kwangju.co.kr



남북공동수업 15일 오후 '6·15 남북교육자 상봉행사'가 열린 광주 무진중학교. '6·15 공동선언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권수희 교사가 진행한 남북공동수업을 북측 대표단이 참관하고 있다. /6·15 광주사진공동취재단

광주공항 패트리엇 부대 미군 4명 낙뢰로 사상

지난 10일 광주·전남지역에 발생한 낙뢰(落雷·벼락)로 미군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미8군 방공여단 2-1 방공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공항 야전훈련장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요원인 이 부대 소속 헤수스 나예라(Jesus Najera·19)일병이 벼락을 맞고 숨졌다.

또 나예라 일병과 함께 근무 중이던 다른 3명의 미군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나예라 일병은 미국 현지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뒤 한국에 배치된 지 채 한 달도 안된 신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 도중 벼락으로 인해 부대원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3일 오후 기지 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했다.

광주공항은 공군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11월부터 한미연합사령부의 소속 주한 미군 패트리엇 부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벼락, 얼마나 위험한가?

벼락(ground discharge)은 구름과 지면 사이의 방전현상(放電現象)으로, 벽력(霹靂)·낙뢰(落雷)라고도 불린다. 벼락이 발생할 때 온도는 3만도에 달하며, 전류 값은 최고 2만A(암페어), 2만A는 100W의 전구 7천개를 32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다. 미국의 경우 연간 100여명이 벼락으로 숨지고 있다.

벼락을 맞으면 화상·골절·내장 파열 외에도 전문(電敎)이라고 하는 나뭇가지나 번개볼 모양 등의 피부 흉반(皮膚紅斑)이 나타난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호흡이나 중추신경마비·심장장애·과열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살아남을 경우에도 시신경 위축·백내장 등 눈의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벼락을 맞은 사람은 인공호흡 후 심장 마사지를 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미국 '낙뢰안전그룹'이 제시한 벼락 안전 지침. ▲송신선·전봇대·큰 나무 등에서 떨어져라 ▲밀폐된 대형 건물이나 차안으로 피신하되 유리창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 ▲컴퓨터·전화기 등 전기용품 사용을 중단하라 ▲강·목욕탕·수영장 등 물은 무조건 피하라. 샤워·세수·설거지도 중단하라 ▲괄크 카트·농기구 등 쇠붙이를 만지지 마라.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락처: 062-366-4220
대주 피오레
1,300여 개서 총 55방형 333개서
문의: (062)366-4220

SK텔레콤, 문자·통화 1시간 불통

상나팔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SK텔레콤(SKT)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통화가 1시간여 동안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 시민들이 큰 불편.

○SK텔레콤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30분경부터 문자메시지(SMS) 전송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1시간여 동안 통화까지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통화가 안되자 SKT 각 지점에는 영문을 모르는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으며, SK텔레콤과 다른 통신회사 전화 가입자 간 통화 연결률도 크게 떨어져 고객들이 큰 불편.

○SK텔레콤 측은 "정확한 장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맡는 장비 중 일부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시정업체

엘케이크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위한 필수요소!
청소에 모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시겠습니까?

엘케이크린(주)의 수도배관 청소 서비스는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엘케이크린(주) 062-603-0799

전국 바다와 심에 푹 빠져라!

바다와 심에 푹 빠져라!

바다와 심에 푹 빠져라!

바다와 심에 푹 빠져라!

바다와 심에 푹 빠져라!